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박연심
 건축사무소 장원
 1950년 7월 서울 생
 흥대학교 건축학과 졸업(1973년)



건축과 출신 과외선생의 영향으로 건축과로 진학하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건축과에 가는 것이 특이한 일에 속했습니다.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가정대학에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이화여고에 다녔는데, 학교에서는 이화여대 가정대학에 가는 것이 지정된 코스처럼 여겨지는 때였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잘한다면 영문과로 많이들 진학했지요. 아무튼 제가 건축과로 진학한다고 했을 때 담임선생이 깜짝 놀라시고, 건축과 진학에 대한 자료가 없었으니 당황하셨지요.

고등학교 일학년 때 무애건축에 근무하던 주길중 선생에게 과외 지도를 받을 때인데, 건축을 좋게 말하시곤 했습니다. 책을 보여주는데, 그리스건축에 대한 기록도 보여주며 설명해주었지요. 건축과로 진학하면 좋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일학년 때 건축과로 진학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영문과로 진학하라고 하셨지요. 고등학교 삼학년 때는 연세대학교 건축과로 구경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건축과 학생들이 둘러앉아 토론하는 모습과 건축사진 등이 붙어있고 그랬지요.

여고 졸업동창들이 건축사인 저를 부러워합니다

요즘 고교 동창들 만나면 저를 부러워합니다.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영문과 진학은 학교성적이 톱클래스에 들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게 성적 좋았던 동창들이 전업주부로 집에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며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당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시야가 좁았던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과제 제출 전에 늘 품평을 해주셨다

그렇게 가고자 했던 건축과에 입학해서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여학생은 돌밖에 없어 매일 돌이 붙어 다녔지요. 과제를 하면서 하도 밤을 많이 샜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의과대학을 가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말하곤 했지요. 너무 혹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딸이 다섯 명이나 돼서 아버지께서 공과대학을 간 딸이 무엇을 하나 늘 궁금하게 생각하셔서 제방을 기웃거리시며 같이 이야기하고, 학교과제를 낼 때 내기 전에 아버지가 항상 느낀 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위 크리틱을 해주신 셈이지요. 어머니는 무관심하셨지요. 아버지께서는 혹시 이 딸이 장래 아들노릇하나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첫 직장은 한정건축, 두 번째는 송민구건축에서

1973년 졸업 후 한정건축(소장 한정진)에 입사했습니다. 거기서 남편인 동정근 교수를 만났지요. 삼년 있다가 1976년에 송민구건축으로 옮겼습니다. 송민구건축에서는 규모가 큰 건축설계를 많이 하

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남산 중턱에 있는 미라마호텔(현재 하이아트호텔) 실시설계, 서울대학교 건축과동, 여의도에 있는 TBS방송국 등을 설계했습니다.

자녀를 갖게 되어 사무소를 개업하다

그러다가 아이를 갖게 되어 고심 끝에 1980년도에 사무소를 그만두고 마침 건축사면허 취득한 후 사무소를 개업하였습니다.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개업할 당시에 이미 자녀가 둘이 되었기 때문에 남의 사무소 다니기보다는 시간적으로 자유롭겠다 싶어 개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동정근 교수는 효성건설에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와 같이 합류한 것은 1990년도입니다. 1992년도에 인하대학교 교수로 가게 되었지요.

대학교 삼학년 때 주택공사 공모전에서 수상하다

한정건축에 있을 때는 주로 단독주택설계나 주택단지 계획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지어지지 않고 불발된 계획안이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어진 것은 작은 주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정건축에 들어가 보니 직전에 류춘수 선생이 사무소를 그만두고 나가셨더군요. 류춘수 선생이 주택 스케치 해놓은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학교 삼학년 때 주택공사 공모전 3회에 응모하여 입상했는데, 당시에 입상자명단에 조성룡, 민현식 선생들의 이름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당시 심사위원장은 김수근 선생이었습니다.

개업 후에 관공서 및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을 많이 하다

개업 후에 한 일들은 주로 관공서인데, 광주전국회, 오산우체국, 면목동주택단지(우성건설이 발주로 준공되었음), 갈월동 연립주택단지, 구기동주택, 염리동주택, 1993년도에 분당주택단지에 설계한 분당 주택 및 분당연립주택 등이 있었으며, 근린생활시설로는 서원건설이 발주한 압구정서원빌딩, 분당서원빌딩, 가락동서원빌딩 등을 설계 했습니다. 최근에는 송파 어린이집, 노량진 사육신전시관,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교수되기 전에는 술상무 노릇을 하다

들어오는 일들은 주로 입소문으로 들어오는 일들이지요. 동정근 교수가 교수되기 전에는 저희 사무소 술 상무(?) 노릇을 했습니다. 저 대신 건축주를 만나주었습니다.

일들을 성실하게 해주니 자연스럽게 일들이 들어오다

들어오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주면 소문이 나서 "이런 여자 건축사가 있는데, 그 사람 알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이 들어오는 겁니

요즘 건축경기가 안 좋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건축설계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건축사들이 정말 돈을 잘 벌어서 과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저는 정말 싫습니다.
 각자의 내면의 삶이라는 것도 있는데 말이지요.

다. 일이 꼬리를 물고 들어온다고 하는 말이 맞더라고요.

소장 포함 4명인데 일인당 1억은 해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 규모는 직원 세 명, 소장 한 명인데 일 년에 일인당 일 억은 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작업과정에서 스케치를 많이 하여 설득하면 수정이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계획안이 나오면 스케치를 여러 장 하는데 그걸로 건축주를 이해시킵니다. 그런식으로 추진하면 수정이 별로 없게 되더라고요. 공사장에도 그 스케치들을 들고 나갑니다. 감독관이나 현장소장이나 스케치를 보면 이해가 빠르고 또 그 자리에서 스케치해서 이해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면만 보여주어서는 이해시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공간을 투시도 방식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손으로 그린 스케치를 가지고 이해시키는 것이지요. 그에 따라 도면이 나오면 별로 이의가 없지요. 수정이 없습니다.

인테리어도 건축의 일부라고 생각하기에 다해준다

저는 인테리어를 건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애초에 건축주에게 인테리어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인테리어 설계비를 별도로 더 받지는 않습니다.

여자건축사의 애로점은 정보에 약하다는 것이다

여자건축사가 대표인 사무소의 애로점을 굳이 말하자면 정보에 약하다는 것이지요. 남자들은 술자리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지요. 바로 내가 말하는 술 정보, 술 한 잔 하면서 할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 외에 하나 더 있지요. 집안 살림, 바깥살림 챙겨야지요.

남편의 크리틱이 많은 도움이 된다

남편이 같은 건축가라 도움이 되는 것은, 계획안 다 해놓고 크리틱 해주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짚어줍니다. 구조계획이 잘 안 풀릴 때라든지 이럴 때 도움을 주지요.

동교수가 학교 은퇴하면 그 이후에는 같이 하게 되겠지요.

서로간의 건축에 대한 관점은 이데올로기보다 더 다르다

그런데 동일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획에 대해서만은 너무 다릅니다. 어찌 보면 이데올로기 보다 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소를 이삼년 동안 같이 할 당시에 프로젝트를 서로 나누어서 진행하곤 했습니다. 서로 코멘트는 해줄 수 있지만 취향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물은 서로가 피터지게 다툰 정도로 토론하다가 불발된 프로젝트도 있어요. 서로간의 건축철학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화가 길버트와 조지라는 동성애자 화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들인데 둘이서 작품을 같이 그립니다. 두 장을 따로 따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을 둘이서 그린다는 것이지요. 건축계에서는 헤르초그 드무론 혹은 로버트 벤추리와 스콧 같은 부부건축가도 있지만, 벤추리 같은 경우는 스콧이 이론을 담당하고 벤추리는 설계작업을 담당하는 식으로 분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방법론 두 편을 발표하다

저도 건축설계에 이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설계방법론 두 편을 썼습니다. 하나는 '시스템 어프로치' 라는 제목으로 「건축사」지에 원고지 100매 정도의 분량으로 게재했습니다. 저의 블로그에 들어가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995년과 2000년 사이에는 '썬 앤 시퀀스'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방법론을 써서 저의 건축설계의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기간이 5년 단위로 그 당시 발표되었던 작업들에 담겨있던 생각들을 정리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썬 앤 시퀀스' 라는 제목의 방법론은 건축세계라는 잡지에 6회 정도 분량으로 발표했습니다.

'시스템 어프로치' 라는 제목의 방법론은 건축은 어차피 입체를 만드는 것인데, 도면은 이차원으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입체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입체구성 자체를 이차원에서 출발하지는 거지요. 주로 해체의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건축법규, 컨텍스트 등을 분석하여 재조립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사무소를 물려준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다

사무소를 누구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건축경기가 안 좋다고 건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후학들을 위해서는 절대금물이다

요즘 건축경기가 안 좋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건축설계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건축사들이 정말 돈을 잘 벌어서 과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저는 정말 싫습니다. 각자의 내면의 삶이라는 것도 있는데 말이지요.

전시회 가는 것을 즐기고, 그것들이 나의 건축에 자양분이 된다

건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문화에 접근하는 것과 저희들은 건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문화에 접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들이 문화에 접근하는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딜레탕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으로 소화할 수 있고 그렇지요. 전시회에 가서 그림을 봐도 저의 건축에 영양제가 되어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즐기는 거지요. 즐기는 그 자체가 건축작업의

인터뷰 후기

역시 사람은 만나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으면 그들의 퍼텐셜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의 사무소는 방배동에 위치한 작은 사무소이다. 조용한 숨소리조차 들릴 듯한 조용한 사무실에서 하나하나 보석을 세공 하듯이 건축을 만들어 내는 그의 성실함에서, 여태껏 사무소를 유지할 수 있는 저력이 나왔다는 점에서 아주 놀랄만하다.

대부분의 사무소들이 약간은 포장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반면에 정말 다소곳하고

꾸밈없고, 진솔한 그의 말에서 건축주들이 자연스럽게 일을 맡기고 실속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뚜벅뚜벅 걸어온 그의 건축에 대한 족적이 당분간도 계속 될 것 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03년에 한국여성건축가협회장을 지낸 사실을 깜박했다.

최동규 편찬위원장

연장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주 행복한 일이 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건축설계업계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축인들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교인 홍익대학에서 12년간을 가르치다

저도 모교인 홍익대학교에서 12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실제인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후배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척 즐거웠고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나는 백남준 선생의 익스트림 벨류를 좋아한다

살아오면서 인생의 신조라고 생각하는 말은 떠오르는 것이 없네요. 저는 백남준 선생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특히 그의 어록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그의 익스트림 벨류를 좋아합니다. 그런 생각이 작품을 대하는 태도이겠지요. 예를 들면 젠(ZEN)같은 경우도 모더니즘의 극단적인 가치가 젠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주변상황과는 확 틀어지는 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작업 바탕에 깔려있는 태도나 생각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지요.

우리나라 건축사들은 너무 일찍 손을 놓는다

앞으로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생각하고 쌓아온 나만의 노하우를 집약할 수 있는 뭔가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만 그 이상의 비전은 특별히 없어요. 언제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만나는 선배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건축사들은 너무 일찍 손을 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건축사협회가 지정한 70세? 그것도 폐업을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금액이 일억도 안 된다고 해서 실망했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성북동에 주택을 착공하려고 준비 중이고, 통의동 한옥 밀집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계획 중입니다.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집은 막 준공이 됐고요, 솔바람어린이 집은 설계완료 후 착공 준비 중입니다.

제가 건축하는 것이 2000년도에 '신 엔 시퀀스(Scene & sequence)'라는 사고를 가지고 해왔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다른 건축하는 이들과 생각하는 것이 비슷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저 혼자만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음단계로 이룩할 건축철학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발표되는 작품들이 서로 너무 비슷한 것과 마찬가지로의 경우예요. 아마 모두 그것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

한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죠. 나만의 어떤 것이 될 것을 찾는 단계라는 것이지요. 하나의 유행과 경향과는 다른 나, 다만 다음 단계로 이룩할 사고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창성이 요구되는 시점이지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건축철학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적당한 프로젝트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여하튼간에 2000년도부터 생각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적으로 건축계는 성황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것이 2010년을 기점으로 예전 같은 발전 속도보다는 조금 느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형프로젝트들이 발주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틀이 나오면서 재래식 사고와 충돌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혼란을 겪으며 오히려 발전을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새롭다는 것이 각자에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런 틀에 맞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인간 보편적인 불변의 피안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눈부시다

부부가 같은 건축설계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크리틱을 언제든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한마디만 해줘도 다 알아 듣는다는 거지요.

혹간 여자건축사 중에 남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친구들을 보면 저보다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같은 정보 속에서 작업을 해나가지만 남편이 다른 직업을 둔 여자건축사는 혼자만의 정보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요즘은 시나리오도 혼자 쓰지 않고 여럿이 합동으로 쓴다고 합니다. 여하튼 세상의 변화가 눈부십니다.

타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라고 권하고 싶다

후배건축사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여러 타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작은 사무소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지야만 한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겠지만 사무소규모의 이원화요, 중간 크기의 사무소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요. 최근 조달청의 설계공모 운영 방법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발표는 매우 적절해보입니다. 소규모, 신진 건축사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요, 서울시의 공모건축가 제도도 마찬가지로요, 국내외적으로 건축계의 모든 영향력은 직원들을 기계처럼 조직화해서 대표 건축사가 되어 마구 찍어내는 그런 큰 사무소보다 작더라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작은 사무소들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